

백남통단편소설집

산초풍경



문학예술출판사
주체 97(2008)

차 례

옛정	(2)
세대의 자취	(40)
30분간	(68)
산촌풍경	(84)
첫 생활에서	(107)
두번째 배치장	(135)
미루나무는 설레인다	(148)
퇴근길에서	(162)
일터	(183)
생명	(204)

생 명

1

강안유보도기술의 나무들은 저녁노을의 짙은 여광을 받아 마치 불붙는듯싶다.

8월의 더위에 단 포장돌들에서 후끈한 열기가 풍겨올랐으나 강넙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리석훈학장은 감회에 잠긴 사람마냥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다.

노을빛이 어려 쇠물처럼 번쩍거리는 강이며 물속에 푸른 머리를 드리우고 늘어선 수양버들, 소공원의 칠벗거진 건의자들, 큰 나무들, 공지의 풀밭들레를 따라 옹기종기 모여앉은 다박술, 우둘투둘한 포장길... 수년간이나 이른새벽의 산책에서 맑은 공기와 사색의 안정을 주던 낮익은 그것들은 오늘따라 더 정답고 친근한 정서적감흥을 자아낸다. 뜻하지 않게 닥쳐온 죽음과 싸우던 병원에서 의 스무날, 료양지에서 보낸 석달이라는 기간이 석훈에게는 옹근 몇해가 흘러간듯싶었다.

《아, 이거 학장선생이 오래간만입니다.》

등뒤에서 울리는 석심하면서도 쾌활한 말소리에 석훈은 고개를 돌렸다.

소공원의 풀밭에서 채양이 넓은 밀짚모자를 쓰고 양철쓰레받기와 자루 건 마당비를 손에 든 오십대의 사람이 미소를 띠고 다가온다.

강안유보도와 그옆의 큰길과 소공원을 말아보는 판리

원이다. 석훈은 아침마다 산책할 때면 어김없이 그와 만
나고 담배불을 나누기도 하고 날씨며 도시에 생기는 짙
막한 소식들을 인사말로 건넌다. 하면서도 그의 이름은
아직 모른다. 사업상관계도 류다른 인연도 없이 지나는
《관리원동문 여전하구만.》

석훈은 양철쓰레받기에 수북이 담긴 휴지조각들과 사
과껍질, 담배꽂초들을 보며 반가이 말을 이었다.
《일요일은 좀 쉬어야지요.》

《산보도 하는 겸 나왔더니 이렇게 어지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엔 극장보다 여기에 더 찾아오지요. 그
런데 사회공중질서를 허술히 여기는 몇몇 사람들때문에
그들의 기분을 잡치거든요.》

관리원은 《사회공중질서》라는 술어에 그 어떤 해학
적의미를 부여하려는듯 양철쓰레받기를 내들며 병긋이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런 휴식날에도 일감이 생기는
불만이 아니라 자기 일터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긍지
와 만족감이 어려있었다.

관리원은 쓰레받기와 비자루를 내려놓고 웃주머니를
뒤져 담배갑을 꺼냈다.

《학장선생은 그사이 어데 갔더랬습니까?》

《무덤속에 한발울 들여놨다가 나왔습니다.》

석훈은 웃음을 지었다.

《원, 저런 대범한 룡담을 하는걸 보니 진짜 사경에서
구원된 모양이구만요.》

《소장이 꼬여서... 대수술을 했지요.》

《아니, 갑자기 그런 병이?..》

《전쟁때 파편에 장천공이 돼서 수술을 받았더랬습니
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유착되고 꼬이면서
장물통증을 일으켰지요. 사흘동안이나 의식을 잃었

습니다.》

《아... 하마트면 우리 공원의 단골손님을 다시는 만나
보지 못할번 했구만요.》

관리원은 천만다행인듯 안도와 념려의 기색을 짓더니
선협자의 어조로 말을 이었다.

《옛상처는 잊어버리기 쉬워서 주의를 안하지요. 난
전쟁때 오른쪽옆구리를 다쳤는데 오십고개를 넘으면
서 밤이면 쭈시는것 같은 아픔이 오는 때가 드문하거
던요.》

《일찌감치 병원에 가보시지요.》

《뭐 아직은... 상우에 오른것 맛이 없는게 없으니까
무탈하단거지요... 아, 손님! 휴지통이 코앞인데 담배꽂
초를 어데다 버립니까?》

관리원은 마치 형사범을 다스리기라도 하듯이 엄격하
게 소리치고는 풀발에 퍼더버리고 앉은 사람에게로 다가
갔다. 그 사람이 면구스러워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관리원은 아무말없이 담배꽂초를 양철쓰레받기에 쓸어
담았다. 그리고는 석훈에게 미안한듯 한 눈길을 보내고
유보도쪽으로 바삐 걸어갔다.

새벽산책때마다 늘 있군 하던 짝막한 상봉이다. 그때와
같이 인연이 깊은것처럼 만나고는 푸쩍없이 헤어졌다. 관
리원은 친분이 두터운 사람보다 길바닥에 널리는 쓰레기
조각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것이였다.

석훈은 어쩐지 그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싶은 충동을
누르며 느직이 발길을 옮겼다. 문득 그는 자기가 한가하
게 저녁산보를 나온것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았다.

시병원의 복부외과 과장을 집에 청해오라는 안해의 간
절한 부탁... 개인날에 우산을 생각 안하듯이 병이 낫고
건강해지면 의사를 잊어버려서는 안되는것이라고 안해
는 충고했다. 의식을 잃고 사경에서 헤매던 남편을, 여느

나
니
나
의사들은 한숨을 쉬고 도리머리를 젖던 환자를 복부외과
과장이 인간애와 의술을 어떻게 쏟아부었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안해였다. 안해는 의사를 위해 일요일저녁을 흥
겹게 보내려고 원심을 썼다. 성의껏 식탁을 차리고 전축
에 끼울 레코드판을 골라놓았다. ... 그것은 한 인간의 생
명을 지켜 구급차에서, 수술장에서, 머리맡에서 진진 밤
을 새우며 심혼을 깡그리 바쳐온 의사에 대한 진정한 고
마움이었고 초보적의리였다.

리석훈학장은 시병원 접수실에 우정 찾아가서야 복부
외과 과장의 집주소를 알았다.

노을빛은 어느결에 스러지고 하늘에는 어두운 회색빛
의 장막이 내리덮인다.

외과과장의 집은 역전광장옆의 3층아파트였다. 창문들
이 작은 둔중한 옛건물이다. 과장은 집에 없었다.

키가 문손잡이에 닿지 못하는 귀엽게 생긴 소녀애가
나오더니 집안일을 순진하게 터놓는다. 아버지가 오빠때
문에 성이 나서 야단을 하다가 집을 나갔다는것이다.

《어데 가셨는지 모르냐? 난... 급한 일이 있어 그
런다.》

석훈은 소녀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왕진을요?》

소녀애는 제 아버지의 직분을 요약한 술어를 어렵잖게
번지였다.

《그럼, 그러루한 일이지.》

소녀애의 얼굴에는 순진한 티가 사라지고 환자가 앓
는다는 말을 들은 의사의 표정과도 흡사한 걱정스러운
빛이 어렸다. 예닐곱살의 아이라고는 믿기 어렵게 진
지한 태도이다. 집으로 때없이 찾아드는 사람들을 언
제나 따듯이 맞아주고 비오건, 눈이 오건 왕진가방을
들고 환자를 찾아가는 아버지의 성실성을 고스란히 물

려받은 모양이다.

《저...기 가면 돼요. 저 아빠트새에 끼운...》

소녀애는 손을 들어 광장 건너편을 가리켰다.

《선술집?》

소녀애는 머리를 끄덕였다. 속눈썹이 촘촘한 눈시울도 결따라 찜뻑거렸는데 룬딱이 선명한 검은 눈동자에는 집안의 어두운 분위기가 비껴선지 흐린 호수물처럼 생기 없었다.

《애야, 걱정말어라. 아버지는 이제 기쁜 맘으로 집에 돌아오실게다.》

석훈은 소녀애의 머리를 다시금 쓰다듬어주고는 현관 층계를 내려갔다.

차들이 드문히 다니는 역전광장은 일요일의 마감시간을 즐기는 사람들과 렬차시간을 앞둔 손님들의 활기찬 소음으로 덮였다. 가로등이 켜지고 네온등의 현란한 불빛이 광장과 거리를 장식하기 시작한다.

《선술집》안은 창문을 열어놓았는데도 담배연기가 들어왔다. 바람 한점 없는 바깥공기가 담배연기를 밀어내지 못하는 모양이다. 술냄새, 고기를 볶는 냄새, 혼탁된 말소리, 웃음소리... 앉은 사람보다 선 사람이 더 많다.

석훈은 안개같은 짙은 공기와 사람들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야 구석쪽 식탁에 혼자 앉아있는 복부외과과장을 찾아낼수 있었다.

눈같이 흰 위생복에 위생모를 쓰고 사려깊은 눈매로 침대에 누운 자기를 내려다보군 하던 과장의 얼굴은 간데없고 수척하고 걸쭉은 초췌한 얼굴이 앞에 있다. 바로 잡히지 않은 소매짧은 여름샤쯔와 관자노리에 흠어져내린 머리칼, 식탁의 한곳을 응시하는 침통한 눈길은 항상 단정한 옷차림과 상처를 찌르는 주저모르는 확고부동한 눈길과 손동작으로 하여 환자들에게 생과 건강에 대한

신심, 믿음을 주던 그 의사가 아니었다.
《과장선생...》

석훈은 식탁걸에 다가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를
조용히 불렀다.

의사의 고민에 덮인 눈시울이 슬며시 열리고 취기로
흔다. 어느덧 입귀와 눈가에 반가운 주름살이 잡히고 입
술이 열리더니 떠들떠들 말이 새어나온다.

《학...장... 선생이구만...》

석훈은 의자를 당겨앉기 바쁘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혼자서...》

《학...장... 선생은 술을... 마셔선 안되오... 해롭
소.》

정신은 맑은듯 했으나 혀는 자유롭지 못했다.

《술을 끊은지 오래니다. 난 과장선생을 데리러 왔습
니다.》

의사는 그의 말을 못 들은듯 두팔을 벌려 식탁을 짚더
니 머리를 떨어뜨리고 탄식하듯 말했다.

《알레...으스(장불통증-라틴어)란건... 내... 아들놈
처럼... 못돼먹은 병이요... 걸으로 약을... 충고를 쥐선...
소용이 없지... 만족스레... 먹을걸 주면 소화는 고사하고...
되려 사람을... 들볶아놓구 괴롭게 만들지... 난 한생을...
수술칼과 입으로 그놈들과 싸우고있소... 손님한테 권할
게 없구만... 이젠 한점 집어도... 될거요.》

과장은 오리불고기가 담긴 접시를 밀어내놓았다.

《과장선생, 우리 집으로 갑시다.》

《누가 또 앓습니까?》

석훈은 머리를 가로짓고나서 말했다.

《병원에서 헤어진 후로는 오래간만이 아닙니까, 가서
저녁이라도 함께 나누시다.》

복부외과 과장은 취기를 쫓아버리려는듯 손으로 눈시울과 피줄이 살아오른 판자노리를 쓸어만졌다.

《고맙소... 그렇지만... 난... 환자아닌 사람의 집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기다립니다.》

《아... 사흘동안을 꼬박 학장선생의 머리맡에 앉아있던 녀성!... 정성이 지극합니다... 이 의사가 건강한 남편을 뵈오니 기쁘더라고... 인사를 전해 주시오.》

《!...》

《그래... 수술부위가 아프진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술... 담배, 찬음식... 굳은 음식, 매운 음식... 근절이요.》

《!...》

석훈은 일신상의 그 어떤 괴로움을 안고있으면서도 의사의 본분을 잊지 않는 과장을 감동스레 쳐다보았다.

과장은 교부의 술을 단숨에 비우고 팔굽으로 식탁을 짚었다. 아까와 같이 침울한 눈길에는 회오의 빛이 짙게 어렸다.

《학장선생... 내 말을 들어주시겠소?》

《어서 말씀하십시오.》

《난 얼마전에... 박사학위론문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복부질환계통에서는 림상경험으로나 학술상으로나... 도에서는 존재가 뚜렷한 의사로 인정받게 됐지요... 왜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가 하면... 단순한 2차방정식문제조차 똑똑히 풀지 못하는 아들녀석이 내한테 있다는걸 말하기 위해서지요... 오늘 사촌별이 되는... 대학의 교무지도원을 만났습니다. 억지를 부려 시험지를 보았지요... 글썄 입학기준점수보다 2점이나 떨어진단 말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애비란게

제 학문만 파구 아들은... 후- 참, 긍지높은 박사지요.》

《...》

《난... 노력을 했습니다.》

외과과장은 술잔을 짹 그러쥐었다. 손아귀에 든 얇은 유리술잔이 금시 바스라질것 같았다.

《도대체 제 살붙이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둘 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석의 공부를 위해선... 보장조건... 욕설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녀석이 한시간쯤만 책상을 마주하고 엉덩이를 붙이면 얼마나 기쁘던지... 후- 인젠 다 쓰라린 과거지요.》

《...》

《학장선생님... 결국 난 사람들의 병은 고쳤지만 아들의 병은 못 고쳤습니다. 사회앞에 후대 하나 똑똑히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자식의 머리통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의술을 안다고 박사학위를 받겠습니까. 가슴을 찢어도 괴로움을 덜것 같지 못합니다.》

리석훈은 타들어오는 목안을 마른침으로 적시며 조용히 물었다.

《아들이 어느 대학에 시험을 쳤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 학장선생네 대학입니다.》

《?!...》

석훈은 언뜻 과장의 눈길을 피하여 잠자코 식탁의 한 곳만 바라보았다. 심중은 자못 복잡하고 무거워졌다. 가슴속 깊이에서는 이 성실한 복부외과 과장에 대한 동정심과 의리가 불길처럼 타오르는가 하면 어느결에 량심과 원칙의 물줄기가 그 불길을 솟덩이로 식어버리게 한다. 그랬으나 동정의 풀무질을 받은 솟덩이는 다시금 서서히 불길이 달린다.

《과장선생... 아들이름이 뭐니까?》

석훈은 자기의 물음에서 학장의 권한과 영향력에 대한

은근한 암시가 배여있음을 느끼자 이마살을 찌프렸다.
의리의 숯불은 열기가 식어갔다.

《정철욱이라구...》

복부의과 과장은 미안쩍은감이 들었는지 말꼬리를 흐리었다. 취기오른 얼굴은 더 붉어졌다.

석훈은 과장의 꾸밈없는 순박성을 보자 자기의 타성적인 결백성에 스스로 화가 났다. 그는 이마의 주름살을 지우며 다시금 온몸을 휩싸는 불길같은 내적충동의 힘을 빌어 웃주머니에서 수첩과 원주필을 꺼내어 이름을 써넣었다.

복부의과 과장은 그 어떤 기대와 희망을 품고 생명을 구원받은 어제날의 환자를 바라보았다.

2

석달나마 학장사업을 대리하던 교무부학장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교육행정사업들이 더미로 석훈에게 안겨졌다.

《생산물》이 수자로, 가격으로, 현물로 나타나지 않는 대학, 학생들의 두뇌속에 나라의 장래를 위한 지식과 교양의 탑을 쌓는 대학이라는 《기업소》의 지배인인 학장은 언제나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리석훈학장은 반나절 지나서야 입학생모집사업문제를 가지고 대학교무지도원과 마주앉았다.

중키에 몸집이 다부지고 목대가 굵은 40대의 교무지도원은 퇴역한 레스링선수를 방불케 하였다.

그는 대학내 교원들과 직원들사이에서 신망이 있었다. 모두가 그를 《저울추》라고 평가하였다. 입학생모집이라든가 기타 사람들 문제에서 한그람도 틀리지 않는 랭철한 공정성과 원칙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사업을 해

나가는것으로 알려졌다.

석훈은 그에게 말했다.

《지도원동무, 시험성적순위를 정했다면... 래일부터
수험생들의 인물심사를 합시다.》

《학부들에서 강의에 지장이 되지 않게 교원들을 동원
시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오. 짧은 시간에 끝내야지... 이번에 입
학생수가 몇명이더라?...》

《215명입니다.》

《여유가 없지?...》

석훈은 이 물음이 안해가 어제 밤 간절한 기대를 가지
고 묻던것임을 되새겼다. 안해는 그에게 《목숨이 경각
에 달했던 당신을 소생시킨 의사를 도와줘야 한다.》고,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처녀시절에 그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처럼 열렬히 말했었다.

교무지도원은 학장의 얼굴에서 무언가 읽으려는듯 조
심스레 살피본다.

《학장동지, 정무원에서 공문으로 내려보낸 수자입니
다.》

《음...》

석훈은 담배를 꺼내 붙여물고 재털이를 당겨놓았다.
눈을 쫓프린채 묵묵히 담배연기사이로 교무지도원을 건
너다본다.

지도원의 얼굴에는 동요와 주저의 표정이 떠오르고 무
언가 자신없어한다.

(이 동무가 내 의도를 알아차려서 그러는걸가?... 아니
면?...)

석훈은 학장의 체모와 위신과 원칙을 떠나서 아래사람
의 눈치를 살피는 구차한 자기를 거울보는듯싶어 온몸이
달아올랐다. 어쩐지 배의 수술부위가 뜨끔거리고 잔등에

는 바위를 짊어진것 같다. 복부외과 파장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는것이 험치 않으며 이보다 더한 괴로움과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구심이 들자 그는 가슴이 조여드는듯 했다. 석훈은 힘겹게 말을 짜냈다.

《지도원동무, 래일 나한테도 인물심사받을 학생을 여러문명 보내주시오.》

《예, 저... 수험번호 133... 학생을 보내랍니까?...》

《왜 133이요?》

《그 학생이 정철옥입니다.》

조심스레 말귀를 잇는 지도원의 얼굴에서 망설이던 기색은 사라지고 그답지 않은 엷은 미소가 번졌다.

(아, 외과파장과 사촌벌이 된다고 했지... 참 다행스런 일이구나...)

석훈은 온몸을 결박한 사슬의 압박감에서 벗어난듯싶어 가벼이 숨을 내그었다. 그리고는 순결치 못한 의도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변명이나 하듯 나직이 말했다.

《예파에서 한 일년쯤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느라면 우수한 학생들을 따라잡을수 있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노력에 달렸지요. 철옥이가 아버지를 닮아 머리는 좋습니다. 제 어머니가 외아들이라고 신발을 잘못 신겨서 그렇지...》

《그 학생하구... 입학생으로 선정 한중에서... 성적이 마감순위에 있는 학생도 불러주시오.》

석훈은 아까와 같이 힘겹게 말을 짜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학장동지... 이번에 아مان 학생을 더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누군데?》

석훈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동지의 딸이 우리 대학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입학기준에서 좀 떨어

집니다.》

지도원의 얼굴은 《정철욱》이 말을 꺼낼 때와는 달리
웃사람에 대한 순종감으로 해선지 썩 자연스러웠다.
《학장동지가 료양소에서 오시기 전에 부위원장동지
가 세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도원은 자기로서는 어찌할수 없다는듯 난감한 표정
을 지었다.

《거절하지 못했던 말이지... 아무튼 생각해봅시다.》

석훈은 지도원에게 입학생문제에선 그 누구도 레외로
될수 없다는것을 랭혹히 말해주지 못하는것이 괴로왔다.
그러기에는 이미 량심이 허락치 않는것이다. 어쩐지 불
안스러웠다. 의사에 대한 인정과 개인적의리에 끌려 원
칙을 벗어난 복잡하고 깨끗치 못한 일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며 벌써 그 관성력으로 걸어나가는 새로운 자기를
본것이다. 그러나 석훈은 물리설수 없음을 느꼈다. 사람
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는 의사, 외과과
장의 고민, 희망을 외면하기에는 때가 늦은것이다. 무엇
때문에 입학생으로 선정된 215번째의 학생을 만나려고
했던가?... 그를 정철욱대신 고려할 대상으로 점찍지 않
았는가?... 그렇다. 석훈은 일생에 단 한번 처음이자 마감
으로 량심을 속인다고 생각했다. 그것으로 복잡하고 불
안스런 심정을 달래고 위안했다.

다음날.

리석훈학장은 수험생들의 인물심사에 여러 시간을 바
쳤다.

세번째로 방에 들어선 학생은 레의 그 215번째 학생이
였다. 물이 약간 바랜 중학생교복을 입은 그 학생은 방가
운데 놓인 의자에 단정히 앉았다. 몹시 긴장되는 모양이
다. 어떤 질문이 들어올가 하는데만 온 신경을 쓰는듯 결
눈조차 살피지 않는다. 술잔 눈섭, 평상시엔 서글서글한

인상을 줄듯싶은 검은 동자의 큰눈, 오똑한 코, 두툼한 입술... 학생의 얼굴은 어덴지 낯익은데가 있었다.

(누구하고 비슷한가?...)

석훈은 재학중의 어느 학생의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지긋게 떠오른 의문을 일축해버렸다.

이름은 오경남이고 강안고등중학교 졸업생이다. 두 손을 무릎에 포개고 앉은 경남의 철색을 띤 얼굴은 도시학생이라기보다 먼 산간벽촌에서 온 학생처럼 어질게 보인다.

석훈은 잠자코 학생을 바라보기만 했다.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하던 그런 자연스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았다. 순박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 대학에 붙으려는 소원이 피처럼 끓고있을 이 학생에게 무언가 질문하는것자체가 벌써 그를 유린하려는 의도를 품고 그러는것이 아닌가...

그는 이미 점찍어놓은 이 학생의 인물심사를 차라리 자기가 하지 말았어야 했을것이라고 후회하였다.

복부외과 과장을 위한 일이 한걸음한걸음 랑심의 대숲을 헤쳐나가는 어려운 길이며 자신의 그늘을 몰랐던 본심과 싸워야 하며 타협과 원칙의 예리한 칼날우에 올라서는 준엄한 일이라는걸 점점 통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힘이 가해진 관성차는 물리학의 법칙대로 모멘트가 큰 방향으로 굴러갔다.

《학생은... 시험을 잘 치지 못했더군그래...》

석훈은 조용히 말했다.

순간, 오경남의 긴장했던 얼굴에 불안과 후회의 구름이 짙어졌다.

《수학성적이 특히 낮소.》

《전... 미분을 적용하는 문제를... 둘다 틀리게 풀었습니다.》

학생은 주눅이 들어 인정했다.

《미분이란 개념이 뭔지는 아오?》

《그건 저... 사물의 운동과정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주 작게 미세하게 쪼개서 보는 방법입니다. 사물 운동에서 한순간을 수학적으로 고찰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속도가 변하는 총알이 날아갈 때 몇초후의 속도를 계산하려면 미분을 리용해야 합니다. 미분을 발견한 수학자는 날아가는 화살도 순간적으로는 서있다고 보았습니다.》

《알고있는데 응용문제는 잘못 풀었거던...》

《이제 다시 미분문제를 내주십시오.》

학생은 자신있게 청원했다.

《대학입학은 중학교진급처럼 재시험이 없소. 누구나 다 붙이는 목적이 아니니까. 입학시험은 흘러간 시간과 같이 만회할수 없는거요. 실력만이 자기를 평가하고 변호할수 있소.》

《...》

학생은 고개를 떨군채 입술만 감빨고있다. 무릎에 포개 손은 맥없이 드리워졌다.

석훈은 대학의 문전에 온 이 어린 학생에게 본의아니게 가슴아픈 말을 했음을 깨달았다. 시험성적이 낮기는 해도 입학순위에 드는 학생한테 무엇때문에 그런 차거운 말을 한단 말인가? 희망을 가지지 말고 불합격통지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고?... 설사 그러더라도 이 자리에서야 따듯한 말을 나눌수 있잖는가!

석훈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머리를 돌려 정치일반상식을 한두가지 물었다.

학생의 입에서는 과녁을 향한 총알처럼 여물고 정확한 답변이 튀어나왔다.

철학에 대해 알고있는걸 말하라고 했더니 고대의 소박한 유물론으로부터 시작된 철학의 발전력사를 조리있게

풀었다. 개념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있는것이 아니라 철학의 심원한 세계를 원리적으로 파악하고있다.

《누가 학생한테 철학공부를 시켜줬소? 중학교에서는 그렇게까지 배우지 못했을텐데...》

《아버지한테서...》

《음... 그럼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지망하지 않고 왜 여기 공과대학에 시험쳤소?》

《저의 아버지는 자연과학을 할려면 먼저 자기자신과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알아야 하고 련관속에서 운동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객관세계의 법칙들을 알아야 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과학연구기관에 계시오?》

《도시경영사업소에 다닙니다.》

《무슨 일을 하오?》

《도로관리원입니다.》

《?...》

리석훈학장은 그만 놀라서 학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서글서글한 눈, 오똑한 코, 두툼한 입술...

(내가 강안유보도관리원의 아들이구나!)

석훈은 채찍으로 후려맞은듯 했다. 전류에 감전된것 같은 몸을 천천히 일으킨 그는 창문가로 다가갔다.

비바람이 불어치고있었다.

창앞의 어린 느티나무가 몸부림친다.

대학마당으로 비옷을 폭 쓴 사람이 등을 구부정하고 진탕을 철벽거리며 걸어간다. 그 모습은 어쩐지 관리원을 련상시킨다. 하지만 그는 아닐것이다.

관리원은 지금 이 비바람속에서 강안유보도나 큰길 아니면 소공원을 돌보고있을것이다. 수년간을 하루같이 도시사람들이 잠에서 깨나지 않은 이른새벽에 거리와 소공원과 유보도의 먼지와 쓰레기를 쓸어내고 담배꽂초와 파

실껍질, 종이조각이 들어찬 휴지통을 털어내던 오십대의 사람, 밀짚모자를 쓴 영예군인, 폭우가 내릴 때도, 눈보라가 아우성칠 때도 그곳에는 초소를 지켜선 보초병마냥 그가 서있다. 밤새 눈이 내린 새벽이면 도시의 어느 혁신자도 숫눈에 발목을 문으며 공장으로 간적은 없다. 아침 산그림자가 도시의 머리위에 명암의 음영을 던지며 서서히 퍼질 때 반반하고 깨끗한 출근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즐거운 기분의 한부분이 어디서 마련된것인지 생각지 않는다.

석훈은 흥분한 얼굴로 창가에서 돌아섰다.

소년은 여전히 두손을 무릎위에 단정히 놓은채 순박하게 앉아있다.

《학생은... 나가보시오.》

석훈은 애써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으나 음성은 갈려서 소년에게 담화의 불만스런 인상을 던져줬다.

학생이 나가자 교무지도원이 들어왔다. 그는 학장의 흥분한 얼굴을 의아쩍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정철욱학생을 들여보내랍니까?》

《아니... 그 학생은... 다른 선생이 만나보게 하시오... 난 좀 혼자 있고싶소...》

《?...》

석훈은 지도원에게서 돌아서서 창밖에 눈길을 던졌다. 애써 마음을 진정하려고 했으나 흥분은 점점 부풀어올라 숨막힐것 같았다. 억눌렀던 그 순결한 본심이 일떠서 가슴속에 폭풍을 일으킨것이다. 모질게 상처입은 량심에서 흘러나온 피는 혈관속으로 뜨겁게 흘러들었다.

비바람은 여전히 휘몰아친다.

창앞의 어린 느티나무가 금시 뿌리채 날려버릴것 같다. 받침대를... 받침대를 세워주어야 어린 나무가 잔약한 뿌리로 땅을 든든히 그리잡고 자연의 시련을 곳곳이 이겨

낼게 아닌가. 그렇게 자라서 세월이 흐르면 거목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다른 나무들처럼 받침대를 세워 주지 않았는가, 봄에 나무를 심고 그만 잊어버렸을가?... 나는 매일 창밖을 자주 내다보면서도 왜 보지 못했는가?

3

밤새 쉬임없이 속삭였을 강물은 여전히 그 무엇인가 주절대며 새벽안개를 피워올린다. 잔물결이 유보도의 화강석기슭을 찰싹찰싹 적신다.

리석훈은 이슬에 젖은 돌포장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잠을 못 자지 못해서인지 머리가 무거웠다. 큰 나무들과 키낮은 관상용식물들이 어우러진 소공원쪽으로 걸을 수록 청신한 대기가 폐장을 적셨으나 기분은 여전히 침울했다. 안개덮인 길쪽이나 공원 어느 구석에서 비질을 하고있을 관리원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은 어제부터 지속된 그 죄스러운 압박감에서 벗어날수 없게 하였다. 그것을 활 털어버리려고 어느때보다 퍼그나 일찍 산책을 나섰지만 가슴속의 안개는 개이지 못했다.

어쩐지 지난해 가을 어느날 새벽의 일이 떠오른다.

... 그날도 신선한 새벽공기를 마시며 걸음을 옮기던 석훈은 가로수들이 늘어선 큰길옆에서 멈춰섰다. 길에는 단풍든 첫 나무잎들이 누렇게 깔려있었다. 어찌된 일인가? 왜 아직 쓸지 않았을가?... 그가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때쯤이면 큰길은 이미 말끔히 쓸려있곤 했던것이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큰길옆 소공원쪽에서 저런 기침소리가 들렸다. 그리로 다가간 석훈은 관리원에게 인사말을 건넌고나서 물었다.

《오늘은 어떻게 공정을 바꾸었구만요.》

《무슨 말씀인지?》

《큰길을 쓸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아, 거긴 담배꽂초나 휴지조각을 주어내고 나무잎은
우정 쓸지 않았습니까.》

《?...》

《학장선생도 주단같은 폭신한 단풍잎들을 밟으며 한
번 거닐어보지요. 기분이 썩 좋을겁니다.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은 가을의 첫 나무잎우로 걸으면서 봄씨가 틀 때
부터 있던 즐거운 일들을 회고하구... 사색에 잠겨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출근시간이 지난 다음에 쓸어도 도시미화에 지장이
없을겁니다. 허허.》

석훈은 감동어린 눈으로 관리원을 바라보았다.

《정서가 깊은분인데... 길쓰는 일을 하다니... 일찌감
치 예술에 종사할걸 그랬습니다.》

《원 학장선생두... 사람들의 정서를 지켜주는것에 비
할 정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술이나 다름없지요.》

《!...》

석훈의 눈앞에는 그때 관리원의 꾸밈없이 소박하고 레
사롭던 얼굴표정이 생생하다.

청춘시절에 조국을 지켜 피를 흘렸고 오늘은 사람들에게
게 즐거운 기분, 정서생활의 만족을 주기 위해 비자루와
쓰레기통을 들고 길가에서 일하는 사람, 그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여기고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그리고 법관처
럼 엄격히 수행하는 사람, 량심에 티 한점없이 깨끗한 그
를 만나서 어떻게 지난날과 같이 사심없는 인사말을 건
네고 담배불을 나누고 날씨를 물을수 있을것인가...

그래도 석훈은 걸어나갔다. 가슴속이 맑은 하늘처럼
깨끗한 사람을 피하는것, 그것은 자신에 대한 기만이며
다시한번 그 비자루 쥔 사람의 성실성을 배신하고 모욕

하는것이 아니라!

밤새 소공원의 구석구석에 깃들었던 안개는 고요히 떠
오르고 잠깐 새들이 조심스레 목청을 가늠해본다.

긴의자들은 어제 내린 비와 이슬에 폭 젖어있고 그옆
에 있는 목이 긴 비질하는 소리가 금시 들릴것만 같았다.
무엇인가 부드럽게 쓰다듬는것 같은 그 규칙적인 소리가...
포연에 그슬고 땀에 질었던 총과 바퀴잡은 비자루, 나무
대로 자루를 박은 그 땀싸리비자루질소리가 들릴것만 같
았다.

그러나 사위는 고요하였다.

문득 석훈의 눈이 빛났다. 공원소로길 나무뒤 의자에
서 밀짚모자귀통이가 보인것이다.

석훈은 반가움과 흥분을 앞세운채 관리원에게 다가
갔다.

관리원은 어제선지 부자연스레 허리를 굽히고 의자에
앉아있었다. 한손은 오른쪽 옆구리를 그러쥐었고 다른
손은 이마를 받치고서 조각처럼 움직이지 못한다. 비자
루와 양철쓰레받기는 발치에 놓여있다.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석훈은 인사말을 건넸다.

관리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마에서 손을
내리자 식은땀이 내뿜은 고통이 바깥 얼굴에 애써 미소
를 지으려 했다. 마른 입술을 움직여 나직나직 답례의 말
을 한다.

석훈은 다급히 그의 어깨를 부축하며 물었다.

《웬일입니까? 어데 아릅니까?》

《아니... 인젠 일없습니다.》

관리원은 혼연히 일어섰으나 한손은 옆구리에서 떼지
못했다.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아마 환절기의 요술인 모양입

니다.》

관리원은 범상히 말하며 비자루를 집어들었다.
석훈은 황급히 만류했다.

《오늘은 그만 쉬지요. 얼굴색이 말이 아닌데... 병원
에도 가보시고...》

《학장선생이 벌써 네번째 손님입니다. 세사람이나 어
지러운 길로 지나갔지요. 아침부터 기분이 맑지 못했을
것입니다.》

《!...》

관리원은 석훈을 남겨두고 여느때처럼 자기 사명을 수
행하기 위해 무접없이 헤어졌다.

석훈은 등을 구부정하고 저만치 걸어가는 그를 뒤쫓아
갔다.

《양철쓰레받기는 이리 주십시오. 휴지통은 내가 털어
내지요.》

《아, 산보나 하시오. 내 어린히 하잖으리요.》

《공원이랑 쓸자면 일이 좀 많습니까. 출근시간까지는
혼자서 힘들겁니다.》

석훈은 끝내 관리원의 손에서 양철쓰레받기를 뺏어들
었다.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동녘산발우로는 장미빛노을이
피여놀라 회색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

한낮이 가까와올무렵에 학장의 방으로 교무지도원이
통지서를 발급할 입학생명단이 적힌 문건을 가지고 들어
왔다.

리석훈은 앞상에 문건을 펴놓고 찬찬히 보았다.
《시험성적순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원은 든든한 몸집을 앞상에 기울이며 말꼬리를 달
...

았다.

《마감 두 학생만은... 요전에 말씀드린대로...》

석훈의 손에 천 굵직한 원주필이 214번에 뒀었다.

《송순희...》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의 딸입니다.》

《입학기준점수에서 떨어진 그 학생이지?》

《그래야 1점이 낮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부위원장동지가 승용차를 세우더니 낮에 학장선생님을 직접 만나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입학생의 이름은 뭐요?》

석훈은 교무지도원이 몸을 흠칠할만큼 날카롭게 물었다.

지도원은 서둘러 사업노트를 펼쳐본다.

《한금옥입니다.》

석훈은 지도원을 신중히 건너다보고나서 묵묵히 원주필로 《송순희》를 그어버렸다. 그리고 그옆에다가 원주필에 힘을 주어 《한금옥》이라고 써넣었다.

지도원은 눈시울을 떨군채 학장의 가차없는 원주필만 지켜본다.

석훈의 원주필은 문건의 다음칸으로 내려섰다.

《215... 정철옥...》

석훈은 피로운듯 나직이 말한다. 원주필은 무언가 주저하는지 움직이지 못한다.

《시병원... 복부외과 과장의 아들입니다.》

지도원이 고집스레 상기시킨다.

석훈은 눈언저리에 손을 대고 생각에 잠겼다. 짧은 한순간에 모든것이 떠오른다. 침울한 의사의 얼굴, 침대에 누운 그를 내려다보던 사려깊은 눈, 하얀 위생복, 약냄새... 밀짚모자를 쓴 관리원, 지식의 욕망에 끓던 순박한 아들... 그 모습들은 섬광처럼 눈앞에서 번갯불처럼

왜 의사앞에서 수첩에 이름을 적었던가?... 살아난것이 너무 고마와서? 기뻐서?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의리를 저버릴수 없어서?... 아니다. 경솔하게 수첩을 꺼내기 전에 생각해 보았어야 한다. 직권과 그 어떤 인간적의리에 출발한 타협과 융화가 낳는 결과에 대해서! 입학의 공정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녀들을 대학문전에 보내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 그 사람이 비자루를 일생의 벚으로 삼고있다 해도 얼굴로만 알고있는 사람이고, 사업상관계도 인연도 없는 사람이며, 잘못을 사과하지 않아도, 후에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고 그들의 순수한 공민적권리와 희망을 통간해선 안된다. 그럴바엔 차라리 내장을 들어내는듯한 아픔과 경련, 고통을 당하며 침대에 다시 누워있는것이 더 편안할것이다.

석훈은 결연히 원주필로 《정철옥》을 그어버리고는 《오경남》이라고 써넣었다. 고개를 들자 얼굴이 거무칙칙한 그림자에 덮인 지도원을 향해 조용히 물었다.

《동무는... 입학시험을 왜 친다고 생각하오?》

단순하고 직선적인 질문이건만 지도원은 못내 깊이 생각하더니 나직이 대답한다.

《누구나 다 대학에 받을수는 없잖습니까?》

지도원의 음성에는 복부외과 파장의 아들이라고 하던 아까의 고집스런 어조는 풍기지 않는다.

《그렇소. 아무나 대학에 받을순 없소. 지도원동무, 그래서 시험을 치는거요.》

석훈은 자리에서 힘들게 몸을 일으켰다. 고개를 수곳한채 방안을 거닌다. 한걸음 또 한걸음, 방안을 채우는 무거운 발자국소리... 그것은 깨끗한 량심을 감싸던 무원칙과 융화의 방패를 짓부시는 포소리처럼 둔중히 울리였다.

《시험성적은... 단순한 수자가 아니지... 그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서 나라에 지식으로 잘 복무할수 있겠는가 하는 척도이고 준엄한 검열일게요. 지식에 대한 심판이지. 성적이 낮은 학생은... 우리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중학교에서 십년동안이나 무료로 공부시켜주었는데도 잘 배우지 않은 학생을 또 어루만져 대학공부를 시키진 못하오.》

《!...》

《등무나 나나 수험생의 성적을 부모의 직업과 련관시켜보는 관점은 비리기요. 아주 유해로운 사고방식이요. 부위원장직위와 유능한 외과의술이 학생자녀의 실력을 대변할수는 없잖소? 부위원장과 의사는 그들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 지식과 재능으로 나라에 복무하는게 아니겠소. 그래서 입학성적은 단순한 수자지만 거기에는 나라의 장래가 비끼게 되오.》

《!...》

《수재를, 탐구심있고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에 받아 키워야 진실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수 있지 않겠소. 그러나 개인적의리와 권력에 끌려 건전한 사회적윤리를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우린 대학의 학장이나 교무지도원이기 전에 보통 공민이요. 조국이 평등하게 준 다른 공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신성한 권리를 조금이라도 묵살할 때는 범죄를 짓는것과 같소.》

《!...》

방안에는 오래동안 정적이 깃들었다.

석훈은 문건아래에 수표를 하고서 교무지도원에게 돌려주었다.

자책에 잠긴 지도원은 돌아갈념을 못내고 그냥 서있다.

석훈은 스스로 미안한감이 들었다.

자신의 마음속에 채찍을 안기느라 한 말이 그에게도 몹시 가슴아프게 들린 모양이다. 석훈은 지도원을 부드

려운 눈길로 바라보며 룡조로 말을 건넸다.

《이보우 지도원동무, 교내에서 동무를 왜 저울추같은 사람이라고 하오?》

《글쎄요... 저의 공정치 못한 처사를 두고 하는 비난 일겁니다.》

지도원은 서글픈 미소를 띠었다.

《아니, 참 좋은 평가요. 사람들의 신뢰를 귀중히 알고 한그람의 편차도 생기지 않게 녹쓸지 마시오. 그러자면 자주 계량형기로 저울추를 검증해 봐야 할거요. 허허.》

《알겠습니다.》

지도원은 얼굴의 그늘을 가시고 문쪽으로 걸어갔다.

...

밤이 깊어서 리석훈학장은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퇴근길에 나섰다.

대학청사의 바깥층계를 내려서던 그는 외등빛에 희뵈히 보이는 느티나무쪽으로 웬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걸어가는데를 보았다.

가까이 다가간 석훈은 그 자리에 굳어졌다. 어둠속에서 옆모습을 보고도 어찌 외과과장을 모르랴. 그의 심장의 고르로운 툄동, 생의 계시와도 같은 맥박을 지켜싸우던 그 잊을수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복부외과 과장도 걸음을 멈추고 얼굴을 돌렸다.

두사람의 눈길이 어둠속에서 부딪친다. 복잡한 가슴속의 천만마디 말을 대신하는 눈길이!... 그러자 아무런 불꽃도 일어나지 않고 눈길은 평온스레 오간다.

《과장선생... 오신지 오래니까?》

석훈은 편도선염을 앓은 사람처럼 갈린 음성으로 물었다.

《교무지도원을 만나고... 나온 길입니다.》

《...》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적을 깨뜨린 사람은 외과과장이다.

《학장선생님... 나때문에... 괴로웠겠습니다.》

그는 띠엿띠엿 말을 이었다.

《환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댄 의사는 응화를 모릅니다. 병세에 대한 무원칙은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의술은 생명앞에서 공정합니다. 난 그걸 철칙으로 알고있으면서도 학장선생이 사회의 료리를 벗어나서 내 아들문제를 처리할걸 은근히 기다렸댔습니다. 생명을 판가리하는 예리하고 가차없는 수술칼을 손에 쥐고서 말입니다.》

《!...》

《날씨가 벌써 선기나는데 배를 차게 하지 마십시오. 알레르스는 몸이 차면 도질수 있지요. 부인더러 털실로 요대를 두툼히 떠달래서 두르십시오.》

《!...》

석훈은 후더운 눈길로 외과과장을 바라보았다.

주체 74(1985)년 3월

백남룡단편소설집 산촌풍경

편 집 리명호 교정 안순영

표 지 김용광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 97(2008)년 4월 1일

발 행 주체 97(2008)년 4월 10일

7-760503